

엔교지 절과 예술

일본문학과 연극 가운데에는 엔교지 절과 그 승려, 그리고 엔교지 절을 방문한 유명한 이들에 대해 묘사한 몇몇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기의 예는 사원의 개조 쇼쿠 대사(910~1007)의 생애에 관한 것으로서, 궁정 여관이자 저명한 가인이었던 이즈미 시키부(976~1030)가 정신적인 지도를 구하여 쇼쿠 대사에게 일본 전통 시가인 와카를 보냈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불교적 묘사가 뛰어난 이즈미 시키부의 이 와카는 당시 최고의 영예였던 칙찬와카슈(천황이나 상황의 명으로 편찬된 와카 모음집)에 수록되었습니다. 이즈미 시키부의 이 와카는 가이산도(開山堂)에서 가까운 북쪽에 있는 석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중세의 군기문학 가운데 하나인 다이헤이키에는 1333년에 고다이코 천황이 가마쿠라 막부 타도를 기원하기 위해 엔교지 절에 방문한 일이 쓰여 있습니다. 다이헤이키가 고쳐 쓰이고 대중화됨에 따라 그 후 수 세기에 걸쳐 무대 연극을 통해 보급되면서 엔교지 절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4세기 후반, 상류계급 사이에서 노(能)(가면을 쓰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상연되는 극)가 널리 인기를 모으게 되었습니다. 쇼쿠 대사는 제아미(1363년경~1443년경)가 쓴 노 작품 ‘에구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극중에서 어떤 남자가 말하는 쇼쿠 대사에 관한 이야기에서 이 극의 주인공이자 죽은 유녀 에구치노키미가 보현보살의 화신이였을지도 모른다고 이야기됩니다. 2006년, 쇼쿠 대사 입적 후 1000년을 기념하여 엔교지 절 조교도(常行堂)의 무대에서 ‘에구치’가 상연되었습니다. 또한 엔교지 절 미쓰노도(다이코도·지키도·조교도)의 카메라에 담기 좋은 풍경은 톰 크루즈와 와타나베 겐이 주연한 『라스트 사무라이』(2003) 등 저명한 텔레비전 드라마와 영화에도 때때로 등장합니다.